

부다피아 사이트 여행



禪불교 비디오

영상자료를 분류할 때 당연히 한 종교라는 장르가 있었지만, 불교는 특정종교의 분류항목을 찾기는 힘들다. 그러나 '선(禪)불교 비디오' 웹 사이트는 불교관련 영상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 주목된다.

'선불교 비디오'에서 제공해 주는 정보에는 선불교 개론·영상·불교일반 등의 정보를 비롯해 티벳과 관련된 티벳불교·문화자료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제작된 불교영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명상과 무소유'(알란 와츠, 시인) '선불교 소개'(다이드로리, 禪山사원 원장) 등을 비롯 6개의 선불교 관련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죽

실범·영화·티벳관련 영상정보

음의 서' 등을 비롯 5개의 티벳 관련 영상정보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티베트학, 선산스님의 설법을 영상제작한 비디오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선불교의 진수를 보여 주었다'라는 평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 영화로 꼽히고 있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과 함께 9개 불교영화 정보가 가장 눈길을 끈다.

현재 '선불교 비디오' 사이트에서는 단지 영상작품에 대한 개요와 가격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나 불교관련 영상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사이트.

선불교 비디오 주소는 "http://www.tstimpreso.com/ram/zenvid/"이다. <옥>

거사 본뜻은 체제비판 지성인

배병삼교수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기고



배병삼교수

불교에서 흔히 '제가 남자신도'를 지칭할 때 '거사(居士)'라는 호칭을 쓴다. 이러한 '거사'라는 말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의미로 정착되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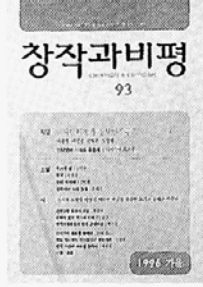
거사로 지칭된 이는 본래 체제비판적인 비주류 인물들로 보수적인 성향과 함께 민중성과 토착성을 지닌 지성인을 의미하는 말로 불교가 우리사회의 지도이념으로 대중화되면서 오늘날의 의미로 정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람 '집에 있는 선비' '집에 있으면서 불교에 뜻을 둔 자'의 세용어가 일반적.

배교수는 인도에서의 '그리하'는 '재물을 많이 가진 불교에 뜻있는 속세의 남자'를 지칭한 것이며, 그러한 것이 한역어로 쓰이면서 '재아의 비판적 지식인'을 뜻하는 말로 변형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들에 대한 보통명사적 지칭으로 보편화된 용어가 되었을 것이라고 유추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배교수는 '그



창작과비평 93

범어 '그리하' 한역... '재물가진 사람' 지칭 불교 대중화 이후 '제가 남자신도'로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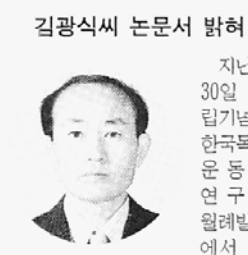
이후 중국에 점차 불교가 대중화됨에 따라 불교 언어들이 격의(格義)적 증축성을 벗고 독립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불교에 심취한 속세간의 남성' 또는 그냥 일반 남성

리하'라는 용어가 중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제아적이고 토착적인 비판적 지식인 그룹을 지칭하는 거사라는 전통적 용어가 적어도 제나라를 비롯한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었을

이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는 단서를 보였다.

이와 같은 거사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자리 잡았을까. 한역경전과 함께 불교가

조선불교학인대회 전통강원 유지 노력



김광식씨 논문서 밝혀

지난달 30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김광식씨(독립기념관 전시부장)의 <조선불교학인대회 연구>는 근대화가 시작된 1920년대에 신학문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육제도를 비판하고 전통강원 교육체계를 고수하기 위해 열린 '조선불교학인

대회'의 성격과 활동상을 논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현재 조계종에서 추진중인 승가대학(강원) 교육의 체계화작업과 관련 근대화가 시작된 지난 20년대부터 전통강원 교육체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 이번 발표에서 김광식씨는 당시 시대가 구학문이 경시되고 신학문 중심의 교육제도 육성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던 불교계 내부에서는 그 수용 범위 및 성격을 둘러싸고 갈등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불교 교

육제도의 대세가 신학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통적인 강원교육은 위축돼 갔다는 것.

그러나 1927년경에 이르러 불교계 일각에서 신학문 위주의 교육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학인대회의 개최원인도 바로 신학문 중심의 교육제도 비판과 구학문으로 상징되는 강원 복구를 위한 필요에 의해서였다.

즉 불교가 중심이 될 수 있는 때가 왔지만 이를 배척하는 것이 오히려 불교계 자체에 있다는 진단하에 불교계 중흥을 기치로 '조선불교학인대회'가 개최됐다.

계·정·해 삼학의 연구와 교

화 방식

을 시대

에 적용

해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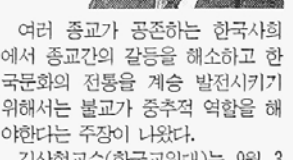
불교를 완성하고 강원 학생들을 시대적 변화에 적응케 하기 위한 자기 쇄신이 주 목적이었다.

특히 학인대회에서 결의된 교육제도의 근간이 동·식물·광물학과 경제학 등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파격적인 교과목이 들어 있다는 점에서 학인대회의 시대적 적응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전통과 시대적 흐름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금상첨화였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데 불교계의 고민이 담겨져 있다.

"종교갈등 해소 불교가 나서야"

김상현교수 '한국의 다종교...' 북경에서 발표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한국사회의 여러 종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불교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것

김상현교수(한국교원대)는 9월 3~5일 북경에서 열린 '종교학 연구현황과 전망' 등을 주제로 열린 국제 학술토론회에서 '한국의 다종교 현황과 불교의 진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불교의 현주소와 미래의 역할을 설명했다.

한국에는 불교, 유교, 천주교, 개

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하고 있는 점들이 타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적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라의 삼국통일이나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

이라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 당위성으로는 불교의 근본이념이 상호 이해를 통한 화합도모에 가장 알맞다는 것이다. 모든 존재의 상호공존을 가르치는 연기론이나 교리에 집착하는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다의성(多義性)을 존중하는 법집(法執)으

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하고 있는 점들이 타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적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라의 삼국통일이나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

사실만 보아도 불교는 현대사회의 여타 갈등을 조화시키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교수는 아직까지 불교가 기대만큼 시대상황에 적절히 대

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사회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복지나 환경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불교의 사회활동을 소개했다.

또 불교는 한민족의 문화형성에 결정적 공헌을 해 왔으나 개인교에 의한 서구문화의 급격한 유입과 보급이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한민족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이를 지키면서 개방된 세계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향모색이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이며,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선암사

대웅전

羅漢堂萬法王 (외의당만법왕) 三十二相百千光 (삼십이상백천광) 莫謂慈容難得見 (막위자용난득견) 不離祇園大道場 (불리기원대도장)

높고 높아 당당하신 만법의 왕 32상으로 백천광명을 비취 주는 구나 그 자비로운 모습 뵈옵기 어렵

대웅전의 주련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큰 위신력과 그에 의지해 수행을 하라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부처님은 이 법계의 높고 당당한 법왕임을 첫 구절에서 찬탄하고 있듯 백천 광명으로 증생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증생은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증생심이 부처님

의 백천이나 되는 광명을 보지 못하는 탓일뿐 부처님이 먼곳에 있기 때문은 아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단언하듯 부처님은 기원정사(부처님이 제자들과 머물던 곳)지만 여기서는 이 세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삼을 뜻한다)를 떠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부처의 종자이고 우리 사는 이곳이 성불의 원토임을 말하는 것이다. (대구 덕운불교대 교수)

문화재단

금동여래입상 발굴 연구서... 통일신라조 제작

통일신라시대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입상 금동여래 불이 발견됐다.

충남 연기군은 지난달 20일 연기군 서면 쌍우리 권터골(일명 부처골)에서 지표조사를 하던 중 금동여래불을 발견, 국립공주박물관에 세밀한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금동여래불은 높이 7cm, 넓이 2.5cm, 두께 2cm 크기로 청동재료에 금으로 도금돼 있으며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다.

연동사지 3층석탑 복원

전남 담양 금성면 금성산성터 입구의 연동사지 3층석탑이 복원됐다.

원형스텝(담양 용화사)은 그동안 기반부 주위에 방치돼 있던 탑의 부분들을 일일이 찾아내고 없어진 2층 옥개석과 3층 탑신 일부에 대해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복원작업을 진행, 지난달 17일 복원을 끝내고 회향식을 가졌다.

이 탑은 고려초기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1호 6면 오장홍씨 사진이 잘못 게재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천연 자연식품의 신기원 그냥 맛이 아닙니다. 말이 필요없습니다. 먹어봐야 압니다.

壯元 생옛

특허청 특허출원중 제536351호

바다의 나트륨성분과 육지의 칼륨성분을 추출한, 독특한 영양물질 탄생!

- ▶ 인체의 건강은 음성원소군(대표자 칼륨)과 양성원소군(대표자 나트륨) K/Na의 조화에 의하여 유지됩니다.
- ▶ 인체의 질병은 체질의 산성화로 냉(冷)한데에 있습니다.
- ▶ 장원생옛은 두원소의 비율을 조절하는 영양식품으로 100%순수 식물로 구성된 한방식물입니다.

연구개발원 : 인강당 생약연구원
 제조원 : 남광산업주식회사
 판매원 : 불교건강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384-10
 상담실 (051)465-5100

※ 전화주문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배달하여 드립니다.